

나주 드라마세트장, 건물 노후화로 '붕괴'

2성문 중간성 누각 붕괴...준치 예정 '고구려성'도 안전 위협 남도의병박물관 건립 부지 드라마세트장...전체 철거 불가피 나주시 "안전 등 고려 박물관 건립 계획대로 세트장 전체 철거"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철거를 앞둔 나주 주몽 드라마세트장(영상테마파크) 내 가설 건축물이 급격한 노후화로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물관 건립 공사를 위해 지난 6월 운영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최악의 경우 관람객 인명 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뉴시스 취재와 제보를 종합하면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계획에 따라 지난 6월12일 전면 운영을 중단한 채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나주시 공산면 소재 나주영상테마파크 일부 건축물이 8월 초 시설물 노후화로 추정되는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위치는 영상테마파크 2성문 중간성 영릉누각(도자기 공방 윗편)이다.

이 건축물은 드라마 촬영용 세트로 지어진 가설

건축물로 운영 중단 이후 관람객이 방문하지 않아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나주시는 건축물 붕괴 사고 이후 지난 7일 문화재보수, 한옥건축전문가와 시설물 붕괴 원인 파악을 위한 현장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자문 결과 누각 붕괴는 6~7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기와 이탈 부분에서 빗물이 장기간 유입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입된 빗물이 누각을 지탱하던 기둥의 부식을 촉진해 결국 부러지면서 무거운 기와지붕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건물에 내려앉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나주시는 지난 9일 전남도 문화재분과위원회 자문을 통해 붕괴된 시설물의 사후 조치를 논의했다. 또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물 출입을 통제

하고 주요 구간에 CCTV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문제는 붕괴한 '2성문 중간성 영릉누각' 뿐만 아니라 나주시가 존치키로 계획한 '고구려성' 또한 건축물 노후화로 기와가 이탈하면서 빗물이 새고, 콘크리트 벽에서 균열이 관찰된 데 이어 목재로 이뤄진 바닥과 기둥도 부식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기와가 이탈한 지붕 부분은 천장에 구멍이 뚫려 하늘이 보일 정도로 건축물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나주시는 당초 존치키로 했던 고구려궁까지 포함해 세트장 전체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고구려궁 철거에 대해 "전남도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업무협약 이행과 2단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철거가 타당하다"며 철거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결정은 박물관 착공 이후 고구려궁의 진입로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시설물 노후화로 향후 관람객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 끝에 내려졌다.

나주영상테마파크는 지난 2007년 준공 이후 16년이 경과했다.

지난 2022년 정밀안전 진단결과 종합 C등급을 받았고 일부 건축물에서는 D등급이 나왔다.

여기에 관람 수입은 급감하는 반면에 일상경비·인건비·시설비 등 고정 지출 비용은 증가하는 만성적자 구조가 지속되면서 5년간 누적 적자 금액만 23억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남도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 정신 계승을 위해 추진 중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일원 부지 36만 3686㎡(110만평), 연면적 6884㎡ 규모로 건립된다.

완공 시기는 2025년 말이다.

전시·체험·교육 공간 등으로 꾸러지고 구체적인 설계 내용은 전남도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박물관 도로 접근성을 확대하고 주변 숲, 산책길과 영산강변 휴식 공간 조성을 통해 명품 체험 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송준표 기자



고흥경찰, 치안종합성과 향상 보고회 개최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지난 16일 10시 소회의실에서 각 과장, 계팀장, 성과담당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치안종합성과 향상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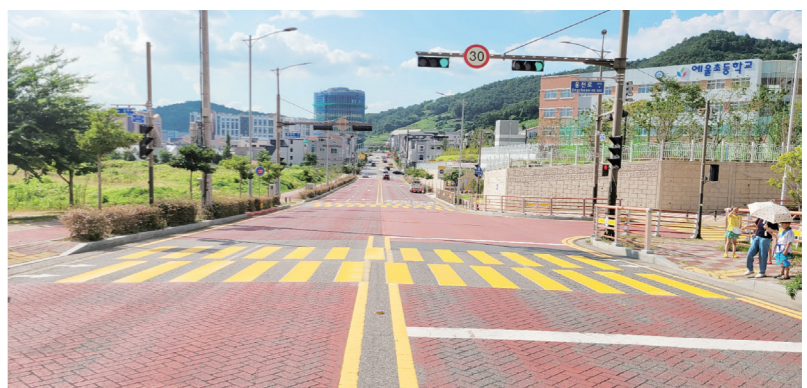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양경찰-협력단체, 다중밀집장소 흥기난동 범죄예방 합동순찰

광양경찰서(서장 최병윤)는 지난 14일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중밀집장소 흥기난동 범죄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 야간순찰을 실시하였다.

광양=김현근 기자



여수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식별 향상 위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최근 웅천동 예울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식별성 향상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9개소 설치하였다.

여수=김현근 기자



담양소방, 화재 원인조사 기법 발굴에 구슬땀 흘려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 현장대응단은 무더운 여름에도 화재 원인조사 기법을 발굴하는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광주 광산구, 청춘월담(越談) 지기단 활동 개시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학 협력으로 추진하는 '청춘월담(越談)' 사업을 본격 실행한다.

임행택 기자



완도해경, 해양오염방제 소식지 발간 "국민과 소통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국민들에게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업무를 알리고, 민간 방계세력과의 협력,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소식지 일명 '반·하·다'를 발간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 광상도 아들 추가 소환조사

광상도 전 의원 소환도 검토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다시 소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선)는 이날 광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초 조사에 이은 추가 소환이다.

병채씨는 김민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우자산관리(화천대우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광 전 의원을 대신해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하나은행의 '성남

의탈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광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했고, 광 전 의원은 병채씨를 통해 이 같은 청탁의 대가를 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이 같은 혐의로 광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지만 아들 병채씨는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광병채가 화천대우에서 받은 이익을 광상도가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광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병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광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



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병채씨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광 전 의원 소환조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슬비 기자



'개학 시작, 즐거운 아이들'

초등학교 개학이 시작된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화초등학교 2학년1반 학생들이 새학기 교과서를 들어보이며 즐거워하고 있다.

오유나 기자

광주 한 아파트서 '200여 가구 전세 사기 피해' 고소장 제출

광주 동구 한 아파트 단지 임대동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세입자 4명으로부터 '임대사업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세입자들은 고소장을 통해 '전세 계약 만료에 앞서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지만 한 푼도 못 받았다. A씨 회사는 나중에 4억원 상당밖에 없다며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대동 전체 200여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등 모두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세입자들이 살고 있던 가구는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진 소형 평수대 동으로 확인됐다.

세입자들 중 일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오유나 기자